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88년 3~6월분)

목마른 땅

송원희 지음



6·25직후부터 4·19에 이르기까지 동시대 사람들이 겪은 아픔을 한 집안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엮은 장편소설. 전쟁을 경험한 서민들의 애환

과 이산가족이 겪는 삶에 대한 비감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격동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이겨내는 크고작은 아픔들,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겪는 갈등과 번뇌를 재현시켜,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인간의 사랑과 용기를 생각해 준다.

청림출판/A5신/334면/3300원

계단과 날개

金萬玉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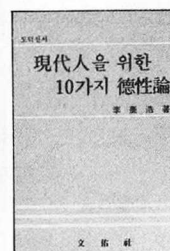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인 4·19를 소재로 한 체험적 장편소설. 한 여대생을 중심으로 4·19의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되살리고 있다. 단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기 쉬운 4·19에 대한 인식을 격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바라본 생생한 리얼리티로 재생시킴으로서, 차츰 퇴색되어가는 4·19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책세상/A5신/206면/2500원

現代人을 위한 10가지 德性論

李奎浩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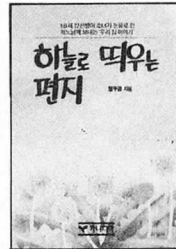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생활의 場에서 더욱 인간다운 삶을 채워가기 위한 규범의 필요성이 절실히 된다. 이 책은 우리의 문화

적인 전통 속에 담겨 있는 덕목들을 현대적인 생활언어로 다듬어 해석하고 있다. 예절과 질서, 근면과 절약, 용기와 인내, 지능과 지성 등 일상언어에서도 퇴색하고 있는 10가지 덕목들을 다시금 되살려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정신적 삶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디딤돌이 되게 하였다. 文祐社/B6/142면/2000원

하늘로 띄우는 편지

정우경 지음



불구의 몸으로 꾀꾀하게 살아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편지형식의 글모음. 출생부터 앓은뱅이인 어머니를 비롯하여 1남4녀 중 네째 모두

하체가 자라지 않는 기구한 운명의 가족이야기가 애뜻하고 솔직하게 그려진다. 부모의 이혼, 아버지의 죽음 등 불행 속에서도 서로 지지하면서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카나리아/A5신/220면/2700원

개구장이 산복이

이문구 지음



「장한몽」 「관촌수필」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소설가 이문구가 산복이, 자숙이 자매를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지은 동시·동요

모음. 시골생활의 깨끗한 모습을 쉬운 말과 가락으로 생생하게 엮어 아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애뜻한 사랑을 담았다. 가난한 삶을 사랑하면서 농사짓는 마을의 여러가지 이야기와 아름다운 꿈들을 노래한 시들 속에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맞게 된다.

창작과비평사/A5신/196면/2200원

내 친구 수첩

아나톨 프랑스 지음 / 김숙현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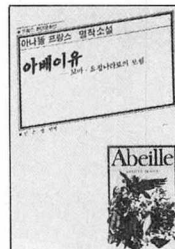


노벨문학상(1921)을 수상한 아나톨 프랑스의 자전적 성장소설. 주인공 피에르가 어른이 되기까지 만나게 되는 모든 것-말과 생각들, 가족과 낯선 사람, 햇빛과 나뭇잎-에 대한 느낌이 기록되었다. 어린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조금씩 발견해내는 과정이 독특한 문체로 전개되면서, 어른들의 타성에 젖은 가치판단기준과 도덕성을 통렬히 비판한다.

동학사/A5신/192면/2400원

아베이유

아나톨 프랑스 지음 / 신은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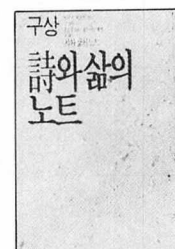
프랑스작가 아나톨 프랑스가 성인들과 어린이를 위해 쓴 환상적 동화. 주인공 소녀 아베이유와 고아인 조르주는 한 집안에서 자라며 사랑을

느끼지만, 어느날 소풍을 나갔다가 아베이유는 난장이나라로, 조르주는 요정의 나라로 각각 잡혀간다. 결국 두 어린이의 착한 마음으로 인해 해후를 하게 된다는 짧은 줄거리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곧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 세계와 통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بل문화출판사/A5변형/140면/2000원

詩와 삶의 노트

구상 지음



원로시인 구상씨가 40여년의 문필생활 동안 써온 청탁원고, 강의, 강연 등을 모아 엮은 에세이집. 시의 음미, 시를 곁들인 인생론, 시에 대한 견해 등 모두 시가 곁들인 에세이들로서, 기술만능의 세상 속에서 시가 어떻게 삶의 원천이 되는가를 제시한다. 한때 신문지상에 논쟁되었던 「우리 현대시의 문제점 몇가지」의 전문과 「동양 삼국의 현대시」의 논문도 실렸다.

自由文學社/A5/330면/3500원

사랑의 명상록

카렌 케이스 지음 / 광은주 옮김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심리학교수이면서 청소년카운셀러이기도 한 저자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쓴 글을 모았다. 인간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랑의 실체에 대해 올바른 지각력을 지니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한다. 친구와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가족간의 사랑, 이성과의 사랑 등 사랑의 본질을 52편의 명상과 함께 정립시키고 있다.

東國出版社/A5신/226면/3000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정지용 지음



남북시인 정지용의 대표시 102편을 모아 엮은 시선집. 「해바라기 씨」 「지는 해」 「기차」 「향수」 등 주로 자연과 고향을 주제로 한 시들이 우리말의 맑고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되었다. 독자들이 접할 수 없었던 그의 영롱한 시들을 다시 만남으로써 잃었던 현대시사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깊은샘/A5 변형/148면/2000원

산새알 물새알

박목월 지음



동심의 세계를 담은 시인 박목월의 동요·동시집. 다람다람 다람쥐, 느릿느릿 느릿보, 산새알 물새알, 장난꾸러기, 참새의 얼굴 등 5부로 나누어 65편을 수록하였다. 「즐거기 때문에」 동시를 쓴다는 저자의 말처럼, 어린이의 마음을 노래한 시와 접함으로써 맑고 건전한 사고를 키우게 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치가 정립되는 청소년기에 동시 속에서 느끼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참된' 것을 제공한다.

자유문학사/A5신/110면/2000원

귀공자

김홍신 지음



「인간시장」 「결신」 등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김홍신의 청소년을 위한 장편소설. 유년기의 풀꽃 같은 싱그러움 꿈의 세계를 주인공 세현을 통해 펼쳐가고 있다. 기성세대는 언제나 젊은이들에게 엄격한 '틀'을 요구하고 강요하여, 꾀꾀한 개성이 자라날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넉넉한 마음으로 싱싱한 언어를 구사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참된 젊은이를 바라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행림출판/B6변형/240면/2500원

빨간 난장이

미셸 푸르니에 지음 / 박혜영 옮김



우리에게 친근한 전래동화, 신화 등의 틀을 즐겨 활용하는 프랑스 작가 미셸 푸르니에의 작품을 번역한 단편모음. 「찌레기」 「아망딘스와 두정원」 「엄지 소년의 가솔」 등이 책에 담긴 8편의 단편들은 모두 물질에 대한 욕망과 정신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주제로 삼고 있다. 고려원/A5신/280면/3000원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

김관희 외 지음



MBC주최 「자랑스런 나의 어머니」 공모수기 우수작 모음. 수기는 모두 10대를 겪은 학생들의 글로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김명숙, 최석호 등이 쓴 20편의 수기들은, 가난과 운명적인 좌절을 극복하며 훌륭하게 자식을 키우고자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청조사/A5신/284면/3000원

文明的黎明

존 A.T. 가우레트 지음 / 배기동 옮김



인류와 인류문화의 발생· 발달 과정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쓰고 고학개설. 고고학자인 저자가 최신 자료, 문헌을 풍부하게 구사하여 인간진화, 연대측정법, 불의 기원, 최후의 빙하시대, 토기의 발명 등 4백만년 동안의 인류문화 발달을 설명하였다.

범양사출판부/B5 변형/210면/7500원

북치는 사람들

라이너 쾰니크 지음 / 박혜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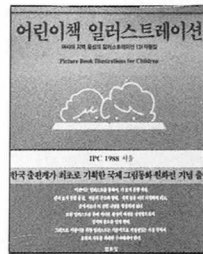


옛날 산속 외딴 곳에 북치는 사람이 나타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자고 외친다. 삶의 열망을 샘솟게 하는 북소리를 따라 사람들은 떠나고 또 떠난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다다른 곳은 처음 떠났던 바로 그곳. 독일작가 라이너 쾰니크의 동화 「북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삶에

대한 꿈, 현실과 이상의 문제를 이야기로 엮어냈다. 고려원/A5신/110면/2000원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

열화당 엮음



「국제 그림동화 원화전」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아시아 지역 중심의 일러스트레이션 124점을 선정, 수록한 책. 어린이는 일러스트를 통하여 가보지 못한 세계, 만져보지 못한 물건, 사물의 형태와 색채 등을 자각하게 된다. 일러스트가 차지하는 이같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열화당/B5변형/158면/20,000원

歷史散策

李圭泰 지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그 잊혀진 역사와 민속, 사상 등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구성하였다. 인조가 어릴 때 살았던 太華亭, 가꾼이의 영화에 따라 흰빛깔을 더한다는 齊洞의 白松, 강화도조약 유적, 忠臣聖地, 金淨, 流配址 등 81곳에 얽힌 한국인의 숨결을 파헤쳤다. 新太陽社/A5/374면/3700원

기상환경의 이해

文勝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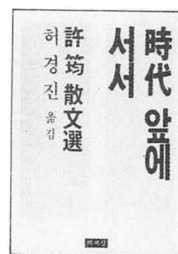


기상의 기초지식 및 인간생활과의 관계를 쉽게 풀어쓴 교양과 학서. 날씨에 얽힌 이야기는 매일 나누는 인사 속에 등장할 만큼 우리와 밀접하지만

만 구체적인 기초지식은 부실한 실정이다. 이 책에는 기상상식, 사계절의 기상, 인간과 기상, 기상학적으로 본 인간과 환경의 미래 등이 기술되어 있다. 地球文化社/B6변형/162면/2000원

時代앞에 서서

許筠 지음 / 허경진 옮김



조선중기의 문인 허균이 남겼던 432편의 산문 중 87편을 가려 뽑아 쉽게 풀어 옮긴 산문선집. 봉건시대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과 건의가 그의

산문들 속에 살아 있다. 자신의 뜻을 칼날같은 논리와 열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했던 허균의 다양한 면모를 접할 수 있다. 어려운 시대의 흐름에 몸부림친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통해,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볼 기회가 된다. 책세상/A5신/308면/3500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金光圭 지음



1975년 기간지 「문학과지성」을 통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한 김광규 시인의 시선집.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아니다 그렇지 않다」 「크낙산의 마음」 등 세권의 시집 가운데서 80여편을 다시 추려 3부로 나누어 엮었다. 때문에 어른들의 뒤뜰린 자화상을 꼼꼼히 그려보이고, 복잡한 현실의 기본골격을 간결한 구도 속에 정확히 압축 표현해 내고 있다.

문학과학평사/B6신/188면/2500원

노벨상으로 말하는 20세기 물리학

고야마 게이타 지음 / 손영수·성영근 옮김



역대 노벨상 물리학 수상자들의 업적과 인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물리학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알기 쉽게 해설한 현대물리학사. 19세기말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도출됨으로써 양자역학과 상대론을 낳아 물리학에 혁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자연관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 책은 20세기 개막과 더불어 설립된 노벨상에 주목하면서 그 수상업적을 더듬어 현대물리학의 윤곽을 저절로 잡을 수 있게 하고 있다.

電波科學社/B6/222면/1500원

철학하는 삶을 위하여

趙要輪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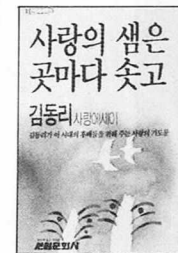


현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전은 언제나 진실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고전에서 얻은 힘과 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이 담긴 글을 모은 책. 비인간적 특성이 증대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기능주의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미의식을 발현시킬 때 총체적인 인간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길사/B6 변형/238면/2200원

사랑의 샘은 곳마다 솟고

김동리 지음



원로작가 김동리씨의 에세이 모음. 60여년간 문학과 철학 종교 등 광범위한 독서에서 얻은 「지식과 즐거움」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해 준다. 교양과 인생, 나의 인생, 자연과 계절, 수양과 인생, 오늘의 사회, 독서의 행복, 사상과 인생 등 7부로 나누어 엮었다.

신원문화사/A5신/318면/3200원

中共紀行

심철호 지음



사회복지 상담기관 「사랑의 전화」의 회장인 저자가 네차례에 걸쳐 방문한 중국 여행 이야기를 담은 책. 현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엮었다. 상

해의 뒷골목 풍경에서부터 북경, 심양, 연변의 한인자치주 등등 현지 동포들의 고국을 그리며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까지를 포착하였다. 教保文庫/A5/336면/4500원

종말전 10억년

아르까지·보리스 스프루가츠키 지음 / 석영중 옮김



소련의 현존작가에 의해 씌어진 장편소설.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는 일군의 학자들을 통해 현실 속에 숨어있는 삶의 공포를 드러낸다. 학문

에 대한 정치의 지배, 性모럴의 추락, 알콜중독 등 사회문제가 레닌그라드를 배경으로 신랄하게 전개된다. 열린책들/A5/218면/2800원

퍼스널 컴퓨터와 그 응용

박순백 지음



퍼스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를 위하여 쓴 입문서. 1장은 컴퓨터의 역사, 2장은 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체에 관한 지식, 3장은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 설명, 4장은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통한 응용프로그램 전반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컴퓨터 프레스/A5/320면/5000원